

美 대학가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 확산...정치권 예의주시

하원의장 등 정치권, 컬럼비아대 잇단 방문... ‘반 유대주의’ 우려 11월 대선 파장 주목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미국 대학가에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가 확산하면서 백악관은 물론 정치권도 그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전쟁이 반년을 넘긴 가운데 이 전쟁에 반대하며 휴전을 촉구하는 대학생들의 시위는 반유대주의 논란으로도 번지고 있다.

앤드루 바이츠 백악관 부대변인은 23일(현지시간) 기자들에게 미 전역의 대학 캠퍼스에서 벌어지고 있는 친팔레스타인 시위와 관련,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CNN 방송이 전했다.

바이츠 부대변인은 “(조 바이든 대통령은) 물론 시위에 대해 알고 있다”며 “우리는 많은 지역사회와 고통스러운 순간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이를 존중하며, 모든 미국인의 평화적 시위 권리를 지지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폭력과 신체적 위협, 증오, 반유대주의의 주장을 목도했을 때 이를 용납할 수 없으며 비난할 것”이라면서 “대통령은 침묵이 공모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이는 국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대통령이 가진 플랫폼(수단)을 사용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바이츠 부대변인은 뉴욕 컬럼비아대 캠퍼스 시위에 대응하기 위해 주 방위군을 배치하라는 일부 공화당 의원들의 요구에 대해서도 주 방위군 배치에 캐시 호철 뉴욕 주지사가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다.

미국 공화당의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컬럼비아대가 전체 수업을 온라인으로 전환한 것과 관련, “중대한 실수를 저지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뉴욕의 트럼프타워에서 아소다로 전 일본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지금 컬럼비아대가 문을 닫고 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냐”며 “미친 짓(crazy)”이라고 말했다.

이어 “컬럼비아대가 힘을 줌 얻고 용기를 내서 학교를 계속 열어야 한다”며 “(학교 폐쇄는) 미친 짓이다. 그것은 상대방이 이긴다는 뜻이기 때문”이라

고 덧붙였다.

반유대주의를 우려하며 유대인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려는 정치권 인사들의 컬럼비아대 방문도 잇따르고 있다.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24일 컬럼비아대를 찾아 유대인 학생들을 만나고 미국 대학 캠퍼스에서 악의적인 반유대주의가 부상하는 것에 관한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라고 하원의장실이 밝혔다.

조시 고트하이머(뉴저지), 댄 골드만(뉴욕), 제러드 모스코비츠(플로리다), 캐시 매닝(노스캐롤라이나) 등 민주당 소속 연방 하원의원은 앞서 지난 22일 컬럼비아대를 방문했다. 공화당 소속 일부 하원의원도 이 대학을 찾았다.

톱 수오지 하원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자신의 컬럼비아대 방문을 전하며 “괴롭힘과 협박, 악랄한 반유대주의의 공격에 직면한 유대인 학생들에 대한 나의 지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컬럼비아대 캠퍼스에서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학생들이 ‘텐트 농성’을 벌이고 있다. 최근 미국 대학가에서는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가 번지면서 학교 당국과의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 ‘안보 패키지’ 법안 상원 통과 우크라, 반격 모멘텀 확보할까

바이든 “이번주 무기 지원”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등에 한해 130조원 규모의 안보 지원을 하고 중국계 동영산 공우 플랫폼 특종의 미국내 사업권을 강제 매각하도록 하는 법안이 23일(현지시간) 미국 의회를 통과, 입법절차를 마쳤다.

미국 상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지난 20일 하원 통과 후 송부된 총액 950억 달러(약 131조원) 규모의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대만 등 지원안과 틱톡 강제 매각 등이 담긴 대외 안보 패키지 법안을 찬성 79표, 반대 18표로 가결 처리했다.

상·하원을 다 통과한 이번 법안은 24일 조 바이

든 대통령 서명을 거쳐 곧바로 발효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의회는 국가 안보를 강화하고, 세계에 미국 리더십의 힘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는 나의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나는 내일(24일) 법안 내 책상에 당도하는 대로 서명해서 법제화하고, 미국민들에게 연결할 것”이라며 “그렇게 함으로써 이번 주 우크라이나에 무기와 장비를 보내기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양원을 통과한 법안에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608억 달러(약 84조원) 규모의 군사 및 경제 지원안,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지원 및 가자지구 인도적 지

원 등을 아우르는 260억 달러(약 36조원) 규모의 지원안, 대만을 중심으로 미국의 인도-태평양 동맹 및 파트너의 안보 강화를 돕는 81억 달러(약 11조원) 지원안이 반영돼 있다.

미국 국방부는 대통령 서명 이후 수일내 우크라이나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브래들리 장갑차를 비롯한 군용 차량, 스텔스 대공 미사일, 고속기동 포병로켓시스템(HIMARS)용 로켓, 155mm 포탄, 토우(TOW) 대전차 미사일 등 10억 달러(약 1조3천700억원) 규모의 무기를 배송하기 위한 준비를 진행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지원이 재개됨에 따라 최근 러시아의 공세에 밀리고 있는 우크라이나가 다시 반격의 모멘텀을 마련할 지 주목된다.

또 이날 통과된 법안은 틱톡 모회사인 중국기업 바이트댄스에 270일(대통령이 90일 연장 가능) 안에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도록 하며, 기간내 매각하지 않을 경우 미국 내 서비스를 금지하도록 한 내용도 포함됐다. /연합뉴스

이스라엘-헤즈볼라 충돌 격화...헤즈볼라 지휘관 사망

이스라엘과 이란의 정면충돌을 둘러싼 긴장이 완화됐지만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 간 격돌 수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23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더타임스, dpa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이날 오전 드론(무인기)으로 레바논 남부의 항구도시 티레 인근을 타격해 헤즈볼라 항공부대의 고위 지휘관 후세인 알리 아즈쿨을 살해했다.

이스라엘군에 따르면 피살된 후세인은 레바논 남부 항공부대의 핵심 인물로 이스라엘을 겨냥한 공격 계획을 세우는 데 깊이 관여했다.

이스라엘군은 “그(후세인)의 제거는 헤즈볼라 항공부대의 능력에 커다란 타격”이라고 강조했다.

이스라엘군은 후세인을 사살한 드론의 촬영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을 보면 후세인이 탄 것으로 추정되는 차가 달리던 중 폭발하고 차 앞부분이 화염에 휩싸인 뒤 2차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헤즈볼라도 이스라엘을 향한 로켓포 공격을 감행했다.

AFP 통신에 따르면 헤즈볼라는 이날 이스라엘 북부를 향해 로켓 수십발을 발사했다며 이스라엘이

레바논 남부 하닌의 민간인들을 살해한 데 대한 보복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 레바논 민방위 소속통은 이스라엘 공습으로 50대 여성 한명과 12세 소녀 한명이 숨졌다고 AFP에 전했다.

레바논 국영 뉴스통신사 NNA도 이스라엘 전투기들이 레바논 남부로 공대미 미사일 2발을 발사해 2층 짜리 주택을 완전히 파괴하면서 2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고 보도했다.

헤즈볼라는 이날 로켓뿐 아니라 드론도 동원해 이스라엘을 공습했다. /연합뉴스

“K컬처, 한국서 직접 즐기세요”

관광공사, 뉴욕 등서 ‘K-관광 로드쇼’...박찬호 특강도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맨해튼 치프리아니(Cipriani)에서 한국 방문객 유치 위한 ‘K-관광 로드쇼’를 열었다.

현지 주류 여행사와 미디어를 비롯해 항공사 및 국내 관광벤처 기업 등이 참여한 관광 프로그램 관측 상담을 했다.

관광공사는 미주 방한객 유치 및 다양한 K-컬처 테마 상품 개발에 기여한 미국 여행사 리모트 랜즈(Romote Lands)와 에스닉 전문 GTT 여행사에 “한국 관광 어워드”를 수여하기도 했다.

네트워킹 세션에서는 영화 ‘괴물’·‘해운대’·‘마더’ OST 작업을 한 음악감독 겸 기타리스트 이병우의 공연을 비롯해 K팝 댄스 공연과 국악 등으로 흥을 돋웠다. 관광공사는 전했다.

조희진 한국관광공사 국제마케팅실장은 “미국 내 교포 및 아시아계 방한 관광 회복세가 견고한 상황에서 최근 한국 문화 바람을 타고 학생부터 은퇴한 어르신까지 관광객층이 다변화하고 있다”며 “테마상품 개발, 학생단체 유치, 시니어 타겟 고품격 관광상품 프로모션 등 전방위 마케팅을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5일에는 로스앤젤레스(LA)에서 부산관광공사, 경북문화관광공사, 대한항공 등 7개 기관과 함께 미 서부 및 하와이 지역 여행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관광 거점 도시인 부산과

경북 안동 홍보전을 펼친다. 메이저리그(MLB) LA다저스에서 활약한 ‘코리아 특급’ 박찬호(사진)가 한국과 고향(충남 공주)을 소재로 이야기보따리를 푸는 특별 강연도 마련된다.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이어 29일에 시카고로 이동해 미 중부 현지 여행사 관계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K-관광 로드쇼를 진행할 예정이다.

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인의 한국 방문 규모는 108만명으로, 팬데믹 이전인 2019년 104만명을 웃돌았다.

올해 1분기에도 미국인 관광객이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할 것으로 공사는 추산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조선의 시인
아홉번째
시집

담양에서 길어 올린 아름다운 시편들의 향연

담양, 인향만리 죽향만리

“ 이 시집은 담양을 사랑하는 조선의 시인이
몸소 시가 된 담양의 현사가 아닐까. ”

이성혁(문학평론가)

시인의 말

과거가 / 미래를 향해 / 현재에 살아 있는 곳
담양은 / 말로만 듣는 것보다 / 직접 와서 보면 안다
왜 다시 오고 싶은지

조선의

농민신문 신춘문예, 기독교 신춘문예, 미션21 신춘문예 당선
송순문학상, 신석경문학상, 신성문학 대상 등 수상
시집 『빛을 소환하다』, 『꽃, 향기의 밀서』,
『꽃으로 오는 소리』,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임의 문장』 등 발간
(시꽃피다) 광주 시청작가
서울 성동구 평생교육원 시청작가
(시꽃피다) 전북지역 시청작가
담양문화원 시쓰기 강사

지은이 | 조선의
펴낸곳 | 도서출판 상상인 ☎ 02-747-1367